

겨울철 가축관리 요령

한우 · 젖소 관리 요령

소는 대체적으로 더위보다는 추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극심한 저온과 세찬 바람 등은 소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축의 성장이나 번식효율 등 생산성을 높이려면 겨울철 축사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겨울철 소의 생산성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3대 환경요인은 온도, 습도, 환기이며 또한 급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육단계, 연령, 급여하고 있는 사료의 영양수준, 관리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용하며 특히 사육 시설과 우사 관리방식이 소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돼지 관리 요령

돼지의 겨울철 관리는 보온이 중요하다. 특히 자돈이 발육하기에 알맞은 온도는 25~30℃ 정도이다. 대기 온도가 최저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돼지는 활동이 둔화되며, 몸을 떨고, 오줌을 자주 누다. 또한 생리적으로 체액중 나트륨이 증가하고 칼륨이 감소되어, 비타민의 요구량이 증대된다. 따라서 돼지는 체온의 방산이 심하고 열의 손실에 따른 사료섭취 증가, 일당중체량 및 사료효율의 저하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겨울철 보온을 위해 바닥에 보일러 시설 및 보온매트 열풍기, 방열램프 등이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섯바람에 의한 열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된 출입문, 창문, 돈사 벽, 지붕 등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닭 관리 요령

산란계는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비교적 강하지만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하므로 사료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습도가 높은 계사에서 저온이 계속되면 체열발산이 심하게 되므로 체온조절이 어려워 추위를 더 받게 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호흡기 질환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사는 대부분이 개방형에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벽이나 천장을 통한 열의 방산이 많아 단열효과가 대단히 낮다. 뿐만 아니라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환경 조절능력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겨울철에 계사내의 물만 얼지 않을 정도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며 특히 계사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급수관이 동파되어 급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축사 화재 예방 요령

농장에서 사용하는 적정 전기용량을 파악하여 용량이 부족할 때에는 즉시 승압 공사를 한다. 그리고 축사내·외부 전선의 피복 여부를 확인하고 전선주변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축산기구의 안전여부 점검과 사용기준 준수하고 축사내 방화수와 소화기구를 반드시 준비한다. 축사 주변의 깔짚 등 인화물질의 정리 정돈을 실시하고 소방 통로 확보도 중요하다.

